

우리의 다양한 이웃

학습 목표

- 1 지금까지 지구의 다양한 이웃들이나 세계 현상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돌아본다.
- 2 세계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1 불균형 지도

지도의 불균형한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래에서 골라 적어 봅시다.
 - 아프리카, 기아, GDP, 말라리아, 인구, 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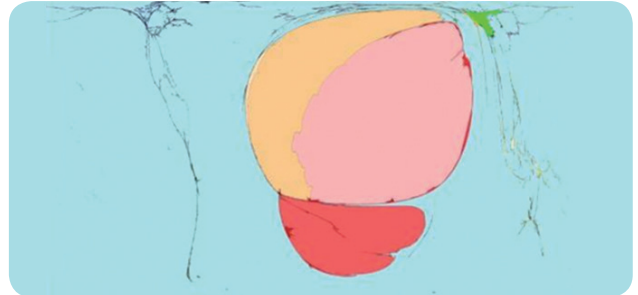
()가 중심에 있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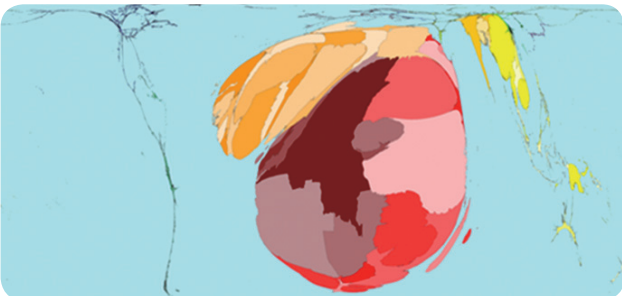
()에 따른 지도



()로 나타낸 지도



() 인구를 나타낸 지도



() 사망률을 나타낸 지도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 비율을 나타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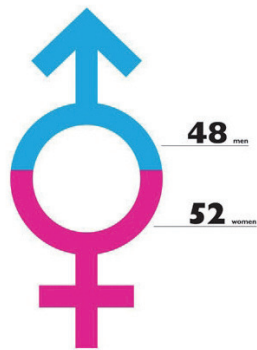
활동 2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워크숍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어떠할까요?
축소된 세계의 현실을 활동을 통해 경험해 봅시다.

세계의 인구	100명 중 6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세계는 지금 고령화? 유년화?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입니다.
다양한 언어	17명은 중국어를 말하고, 9명은 영어, 8명은 힌디어를 사용합니다.
식량	100명의 사람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그 중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15명은 비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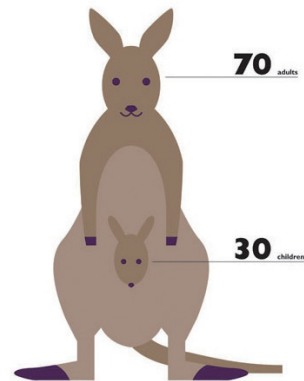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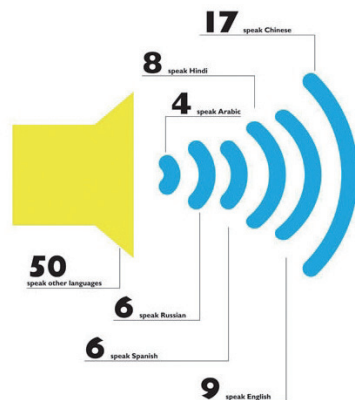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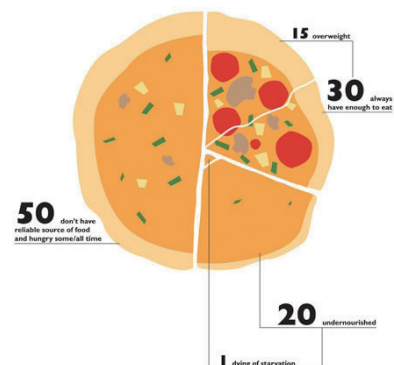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

LANGUAGE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 people

FOOD



우리가 가진 권리

학습 목표

- 1 우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안다.
- 2 인권이 결핍된 지구촌의 현황을 인식한다.
- 3 지구촌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자세를 갖는다.



활동 1 동영상 [파키스탄 아이, 이크발]

동영상을 보며 느낀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크발은 부모님의 빚 때문에 4세 때 카펫 공장으로 끌려 갔다.
흑독한 10시간의 노동의 대가는 하루에 1루피(24원).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일하다가
13세에 탈출,
소년노동운동가로 변신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활동한다.

동영상을 보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 동영상에서 침해당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인권은?

내가 이크발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인권은 무엇이고,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활동 2 한 발 앞으로 게임

선생님이 나눠 주는 역할 카드를 받으세요. 친구들과 한 줄로 서서 질문의 답이 '네'이면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아니요' 이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할 카드 속 사람이 되어 상상해 보고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세요.

① 내가 맡은 역할 :

② 나의 역할이 보호받지 못한 것 : '내(역할)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질문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했나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했나요?

③ 나의 역할이 보호받은 것 :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질문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나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나요?

④ 나의 느낌 :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게임 후 다른 친구들과 거리 차이가 많이 났나요?'
왜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했나요?

활동 3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엽서 쓰기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보낼 엽서를 작성하세요

■ 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단체를 응원하는 내용
- 단체에서 인권을 위해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
- 오늘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거나 행동하기로 다짐한 내용

■ 엽서를 작성할 때는

- 정중하게 쓸 것

엽서를 쓰는 이유는 단체를 지지하고 정책의 변화를 위한 것이지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자신에 대해서 쓸 것

자신의 국적, 직업 등에 대해서 명시하면 엽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의 관심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법 또는 자국 법률을 이용할 것

구체적인 내용, 권고 또는 요청사항은 인권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합니다.

- 엽서를 쓰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다른 SNS 활동을 통해 다른 회원과 나누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알게 하는 것은 인권을 위한 또다른 활동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는 엽서 한 장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의 엽서들이 모여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단체에 새로운 활동을 제시하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 안아우(나이지리아의 신문 편집자)

굶주림 없는 세상

학습 목표

- 1 지구촌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한다.
- 2 빈곤의 실상과 세계의 현상에 대해 안다.
- 3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2 신 무역 게임

신 무역 게임을 통해서 세계의 무역구조와 경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게임 방법

- 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 ② 모둠별로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모아야 합니다.
- ③ 돈은 종이를 잘라 제품을 만들고, 마켓에 파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④ 제품의 형태와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 주세요.
- ⑤ 단, 반드시 가위를 사용하여 선을 깔끔한 모양으로 자르며 정해진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 ⑥ 게임 중간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조별로 상의하여 해결하세요.
- ⑦ 게임 중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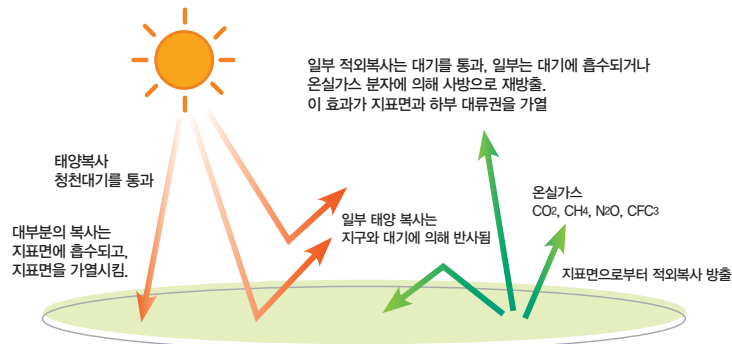
학습 목표

- 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 ②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기후 변화에 대한 퀴즈를 함께 풀어 봅시다. 정답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문제	정답
① 지구의 열을 붙잡아 지구를 온실처럼 만들어 주는 특성을 가진 기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② 우리가 숨을 쉴 때나 자동차를 탈 때 생기는 온실가스는 무엇일까요?	
③ 소가 방귀를 끼거나 트림을 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는 무엇일까요?	
④ 석탄과 석유같이 공룡이나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져서 만들어진 연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⑤ 온실가스 중 가장 양이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⑥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⑦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몇 도 올랐을까요?	
⑧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⑨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⑩ 이산화탄소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⑪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일까요?	
⑫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다시 써도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출처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2005)

우리가 사는 평화로운 세상

학습 목표

- 1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한다.
- 2 전쟁과 갈등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3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평화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려 봅시다.

평화란

(이다).

동영상 [평화의 오아시스]

분쟁으로 황폐해진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는 ‘평화의 오아시스’로 불리고 있다.

1948년 부통령 부정 선거로 인한 내전으로 약 2,000명의 자국민이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시민경비대를 설치하는 등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활동 2 평화에 대한 생각 모음 카드

평화에 대한 생각 모음 카드를 읽고 주제에 맞게 분류해 아래에 붙여 보세요

평화 생각 모음 스티커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분류한 카드를 참고하여 모둠별로 토론을 해 보고 각 질문에 대한 “우리들만의 평화 정의”를 내려 보세요.

질문 1 : 평화는 무엇인가?

질문 2 :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질문 3 :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질문 4 :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활동 3 평화 포스터 그리기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포스터를 그려 보세요.
위에서 작성한 우리들만의 평화 정의를 활용하여 포스터 문구를 정해 봅시다.
(추상적인 문장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이 좋습니다)

정답 스티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

섭씨 0.6도

기후변화
(폭풍우가 세진다. 홍수나 가뭄이 심해진다.
더위가 심해진다.)

중국

미국

15위

재생 (가능) 에너지

우편엽서 쓰기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9.1 - 2012.12.31

서울마포우체국
제40777호

보내는 사람 _____

□ □ □ - □ □ □

받는 사람 _____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교육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2층

1 2 1 - 8 8 7

탄소 발자국 스티커



평화 생각 모음 스티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조지 워싱턴

전쟁 준비를 해놓아야 평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 존 F. 케네디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 아인슈타인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 A.J. 머스트

폭력은 정의의 적이다. 평화만이 참다운 정의를 가져올 수 있다.

- 요한 바오로 2세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곳에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 청담선사

서로 서로 미소를 지으십시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 마더 테레사

좋은 전쟁 또는 나쁜 평화는 없다.

- 프랭클린

폭력은 적을 파괴하지만 비폭력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평화는 마음에서 온다.

- 피터 부룬디

평화가 명예와 함께 유지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평화가 아니다.

- 존 러셀

사랑의 힘이 힘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계는 평화를 맞볼 것이다.

- 지미 헨드릭스

온정과 사랑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내적, 외적인 평화의 원천이며, 인류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이다.

- 말라이라마

평화와 자유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사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 말콤엑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세계에는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9명은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은 동성애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입니다.

33명은 기독교, 19명은 이슬람교, 13명은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 같은 모든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7명은 중국어로 말하고, 9명은 영어를, 8명은 힌두어와 우르드어를, 6명은 스페인어를, 6명은 러시아어를,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해도 겨우 마을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벵골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중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74명이 39%를, 그리고 겨우 2%만을 2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6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신앙,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것, 그리고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1년 동안 마을에서 1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아기가 새로이 태어나므로 내년에 마을 사람은 101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행복은 두 배, 세 배로 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떠올리며 이 글을 보내 준 누군가가 존재하고, 당신은 물론, 글자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은

돌고 돌아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부르세요.

신나게 맘껏 춤을 추세요.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세요.

설령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먼저 당신이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살아 있다는 것을
당신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만일 우리 중 많은 이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비열한 힘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시리아, 어린이를 인간 방패로까지 이용 UN, 보고서 발표 “단죄받을 것”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은 11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 ‘어린이와 무력 분쟁’에서 시리아 어린이들이 정부군, 정보기관, 친정부 폭력 단체인 ‘샤비하’ 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불구가 될 만큼 심각한 구타를 당하거나, 임의 체포, 구금, 고문, 성적 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3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이들립 성의 아인 라루즈 마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며, 8~13살 정도 어린이들을 정부군의 수송 버스 앞에 세워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리아가 어린이를 살해 · 고문하거나 강제로 전투에 내모는 ‘치욕적 명단’(list of shame)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시리아 내 시위가 시작된 뒤, 학교가 군 사령부나 수감 센터로 징발되는 일이 잦았으며, 어린이들을 수감하고 눈가리개를 씌운 채 전선줄 등으로 구타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정부군의 한 병사는 유엔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진압 작전에 나서면서 ‘어린이나 여성도 개의치 말고 쓰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 세계가 시리아의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단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어린이들이 ‘희생 폭탄’이 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희생 폭탄은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살 폭탄 공격에 투입되는 이들을 뜻한다. 유엔은 2011년 한 해에만 각각 11명의 아프간과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희생 폭탄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보고서의 신빙성과 관련해 “이곳에 거론된 내용은 지난 3월 ‘어린이와 무력 분쟁’ 대표가 현장의 난민 캠프 등에서 피해자를 인터뷰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단에는 시리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국립 경찰, 수단, 리비아, 이라크 등 52개 국가 또는 무력 집단이 올랐다.

길윤형 기자 <한겨레 뉴스> 2012년 6월 12일자 기사



더하는 정보 인권을 위해 일하는 NGO단체와 국가산하 기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or.kr

영국의 변호사 베네슨 씨가 1963년 창설했다. 런던에 있는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약 150여 개국에 800여 지부와 110여 개 이상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초월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고문, 실종, 사형, 난민 등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에 대한 공로로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 등을 수상했다.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세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의 첫 회담 때 창설되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와 함께 국제연합의 초창기부터 작동했던 두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회원국 모두가 서명한 유엔 헌장 68조를 기반으로 창설된 조직이었다. 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에 의해 2006년 6월 16일 해체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를 대체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ohchr.org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유엔 사무총장 산하에 만들어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며,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권 관련 각국별 현안을 조정, 권고하는 일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 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인권 기구이다. 국가가 행해 왔던 직접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막아내며 국가가 진행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 관행,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요청하며, 국가가 하는 인권 보호와 지원 기능을 나누어 맡고 있다.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다.

한국인권재단(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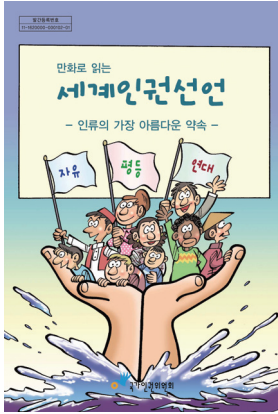
한국인권재단은 1999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권연구, 담론의 심화와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및 리더십 양성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재단입니다.

홈페이지: www.humanrights.or.kr

* 이 밖에도 많은 단체와 정부 기관들이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지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결혼할 사람 둘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은거나 또는 타인의 공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휴식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23조: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 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 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

동 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 기초 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타인 인권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리베랄타의 희망 찾기

한국국제봉사기구(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KVO)
볼리비아 리베랄타 시 복지관 및 원주민 긴급구호 지원사업

아마존 밀림 지역의 계속되는 황폐화(무분별한 목재 벌채, 화전 농법에 의한 밀림 소각)로 주요 자연 원시 식물군과 동물군들이 소멸해 가면서 많은 밀림 주민들이 계속 리베랄타 시로 이동하고 있다. 더구나 2007년 2~3월에 발생한 극심한 홍수로 집과 재산, 농지와 밀림을 잃은 베니주 원주민들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고지대인 리베랄타 시로 이동했다. 리베랄타 시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 팽창에 대비하여 3대 긴급 대책(어린이 · 노인 무료 진료, 긴급 양식구호, 소규모 영세성 사업자금 지원)을 세웠으나 이는 계획일 뿐 예산 조달이 어려워 국제 NGO들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다. 이에 한국국제봉사기구(이하 KVO)는 리베랄타 시 노인 · 어린이 · 영아 등 소외 계층 3,000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무료급식 및 의료지원을 시행했다.



진료실에서 진찰받는 아이



KVO는 리베랄타 시에서 가장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4개 마을에 급식 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마을 급식소에서 나눠 주는 음식은 리베랄타 복지관 주방에서 직접 장만하여 각 마을로 이동 배식했다. 8월 이후 기후와 시간상의 문제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각 급식장에서 음식을 마련하기도 한다.



700명 아이들의 급식

2007년 베니주의 홍수 피해로 리베랄타 지역으로 몰려든 수재민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 · 중반기의 급식소 전체의 일일 급식 수혜자 수가 500명으로 제한되어, 많은 원주민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그리하여 하반기에는 KOICA의 예산을 조정해 급식 혜택 인원을 700명으로 증원시켰다. 그런 중에 한낮 열대의 폭염에서도 급식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줄 서 있던 주민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마을의 각 통 · 반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배식 시간을 정오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로 나누어 3차례 배식을 시행했고, 오랜 시간 긴 줄 서기가 사라짐으로써 무사히 무료 급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KVO는 리베랄타 시내에 증개축한 내과, 치과 진료실을 중심으로 하여 밀림 원주민 지역에 구급차로 이동순회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정글 지역 순회 진료는 주 1회 시행 예정이었으나 진료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주 2회로 늘리게 됐다. 그러나 군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의료진들이 시국혼란과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아서 진료시간은 축소됐고, 의약품이 부족해서 환자들을 완전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안타깝게도 증가하는 환자들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국 혼란으로 의료진 인력 및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의료진으로 시내 진료소 운영과 장거리 이동진료를 병행하다 보니 의료진들이 피로를 호소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지속적인 독려와 봉사



에 대한 교육으로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현재 담당 의사들과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진료 기록을 통한 진료 현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다.

2007년부터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영아 임시보호소 운영을 하고 있다. 1일 15~25명, 1년에 약 900여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리베탈타 아동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파견되어 아동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상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많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영양부족과 폭력에 시달렸던 만 1살 2개월의 남아가 떠오른다. 아기의 어머니는 15살 소녀인데, 어느날 계모에게 아기를 잠시만 맡아 달라고 하고는 행적을 감추어 버렸다고 한다. 곧 온다는 말을 듣고 잠시만 보호하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딸도 아닌 의붓딸의 아이였으므로 아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주 매질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먼 친척이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다가 의사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친척 여성과 함께 아이를 보호소로 데려온 것이다. 일단 아이를 소아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영양제 투입 및 치료를 시작하고 보모를 24시간 상주 대기시켜 보호했다. 그 결과 현재는 양호한 건강상태를 회복했으며 시 아동 인권위원회와 상의하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부모를 선정하여 입양을 시킬 예정이다. 밀림 원주민들의 가족 생활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족 계획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 사정이 낙후되다 보니 어린이들의 보호문제가 늘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KOICA와 KVO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영아 임시보호소는 가족으로부터 방치되고 사회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 사회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인권위원들이 있는 영아 임시보호소

출처 : 2008 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사례집 《지구촌 희망이야기》,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더하는 정보 빈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부 NGO 단체, 국제기구, 정부기관 소개

한국국제봉사기구(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KVO)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유엔경제이사회에 등록된 NGO로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긴급구호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의 복지, 문화, 환경을 위해 일하며 UN 및 NGO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민간봉사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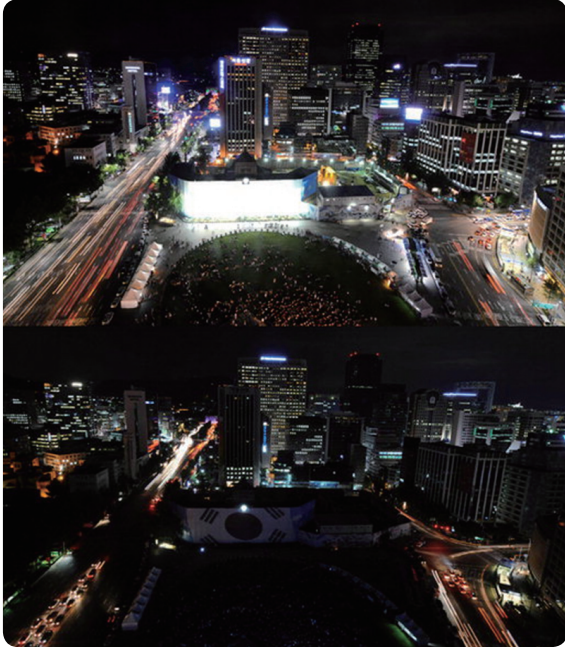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부산하기관이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인프라 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이 밖에도 많은 NGO 단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촌 빈곤 퇴치와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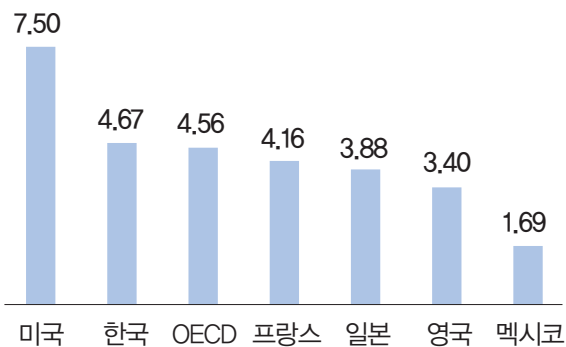
기획기사 > 조금씩 불편해지기



2008년 8월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불 끄기' 행사가 열린 서울시청 주변의 불 끄기 전(위쪽), 후의 대비가 명백하다. 다만 인근 90여개 빌딩 중 일부는 소등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0년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단위 : toe/인 * toe=석유환산 에너지 소비량)



영국, 일본을 능가한다. 그래서 지난해 1,216억 5,000만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전력소비는 1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증가율은 10% 안팎이다. 다른 나라보다 12배만큼 더 편리를 좇고, 소비에 탐닉하는 것이다. 김치냉장고 보급률은 80%를 넘어서었다. 외국인들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한 가정당 냉장고를 평균 2대씩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한다.

이런 사회에서 전력 공급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난 9월15일 이미 예습을 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김경아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동칫솔로 이를 닦는다. 사용한 접시는 식기세척기에 넣고 버튼을 누른다. 건물에 들어갈 때는 센서가 부착된 문이 저절로 열린다.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에 긴소매 옷을 입고 생활한다.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마트에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 월급날에 경아 씨는 돈을 만져 본 적이 없다. 거의 모든 결제는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다. 손가락 끝만 움직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아 씨는 요즘은 톱스타 부부가 광고하는 '옷 전용' 냉장고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다. 32인치 TV를 보고 있지만 55인치 발광다이오드(LED) 3DTV로 바꾸고 싶다. 갤럭시S를 쓰고 있지만 아이폰5가 나온다는 소식에 환호한다. 55인치 TV를 사려면 32인치는 버려야 한다. 아이폰 5가 나오면 산 지 1년도 안 되는 갤럭시S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대해 그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

패션도 한철 입고 버리는 패스트패션이 유행이다. 멀쩡한 옷이 일회용 컵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하루에 35만 7,861t의 쓰레기가 쌓였다. 2009년 현재 전국 쓰레기 매립지는 처리 가능량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부산물이다.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절제 없는 욕망을 위해 장시간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고 번 돈으로 쓰레기를 사고 또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의 악순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모은 물건이 에너지를 삼키기 때문이다.

더 큰 TV를 보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에너지 소비 세계 8위로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프랑스나



1,902건, 2,905명이 긴급구조를 요청했다. 4,588개 중소기업이 총 301억 9,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편리함을 좇아 쌓아올린 정보기술(IT) 왕국 역시 사상누각(沙上樓閣)처럼 불안하다. 도시 곳곳에 무선 인터넷망이 깔리고 금융 네트워크 위에 설계된 IT 한국의 미래는 장밋빛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전이 되자 IT는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4월에는 농협 전산망 장애 사건으로 3,000만 명에 달하는 농협 고객들은 18일 동안 IT 디스토피아를 목격했다. 각종 포털사이트 해킹으로 빠져나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매매되고 있다. 편리함에 중독될수록 불안과 공포의 크기도 커진다.

지난 3월 12일, 결국 끝없는 욕망과 소비가 폭발했다. 지척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에 눈감은 결과였다.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토대 위에서 불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욕망은 지구를 덮히는 탄소도 배출한다. 요즘 국내산 명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대표적 한대성 어종인 명태가 한반도에서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면의 온도는 1년에 약 0.6도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가량 빠른 속도다. 해수면 0.6도를 올리려면 핵폭탄 150만 개가 터질 때 내뿜는 에너지 양이 필요하다.

10년 후인 2021년쯤에는 한반도의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이 모두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된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에 닥친 이상한파로 폐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사망률이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농작물이 타격을 받아 식품 물가가 치솟았다.

20년 전만 해도 아토피를 앓는 아이가 드물었다. 그러나 2009년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나 됐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은 사실 죽음을 무릅쓴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덜 편리하게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핵발전소 54기 중 43기가 운전 정지됐다. 그러나 정전은 없었다. 두 대가 운행되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는 한 대만 움직였다. 공장들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평일을 피해 가동했다. 서울보다 훨씬 습하고 무더운 도쿄에서는 대학 교수들도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차가운 물이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러닝셔츠를 입고 있는 풍경이 일반화됐다. 소비를 조금 줄였지만 시스템은 충분히 돌아갔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 니혼대학의 후지무라 야스유키 교수는 원전 사고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한다. 지금처럼 살면 그의 말대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꿔 보자. 가까운 지역에서 난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 보자. 식재료가 생산, 운반, 소비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름이 쓰이고 공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자.

제조제·살충제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 시 발생하는 유해 약품처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밥을 먹은 후에는 ‘탄소발자국’을 살펴보자. 쌀밥 한 공기, 볶음국, 된장찌개, 쇠고기 장조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를 아침밥으로 먹었다면? 승용차 1대가 11.9km를 달릴 때와 같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넘치게 만들고 버리는 일을 줄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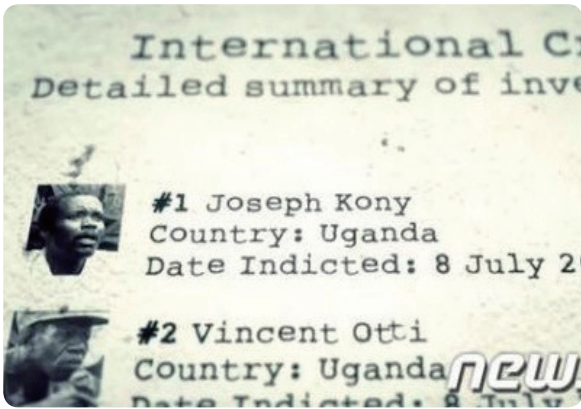
플러그를 뽑자. 대기전력은 가정용 소비전력의 10.3%다. 전기제품이 동작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이 전체의 10%를 넘는다는 말이다. 가족들이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한밤중에도 스위치는 켜져 있다. 휴대전화의 충전이 끝나도 무심코 꽂아 두는 충전기에서도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있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비만이나 성인병, 우울증, 자살은 더 늘어나고 있다. 편하게 살기는 결코 우리의 행복과 풍요를 보장하지 못한다. 건강, 안전한 사회,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소의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소년병 제이콥 이야기



조셉 코니의 소년병이었던 제이콥/출처=ABC News News1



국제형사재판소지명수배 순위 1위에 오른 조셉 코니

제이콥은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에게 끌려가 부모를 총으로 쏘거나 친구들의 얼굴을 훼손하라고 강요받았다. 그의 형은 탈출을 시도하다 이 소년의 눈앞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제이콥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6만여 명의 우간다 어린이가 조셉 코니에게 붙잡혀가 남자 아이들은 게릴라 군으로, 여자 아이들은 성 노리개로 전락했다. 코니는 주로 한밤중 시골에서 잠자는 어린이들을 납치해 자신의 병사로 삼았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셉 코니(61)는 정권 축출을 내세우며 우간다 반군단체 '신의 저항(Lord's Resistance Army)'을 조직한 뒤 20년 이상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지명수배 1순위에 올랐다. 조셉 코니의 범행이 전해지자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조셉 코니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고 미군 자문단을 우간다에 파견해 조셉 코니 포획 작전을 세

우도록 했다.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잠적한 코니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행방 불명된 코니에 대한 관심이 식어 가며 미군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제이콥과 인연이 있는 한 비영리 단체가 나섰다. 비영리 단체 '사라진 아이들(Invisible Children)'의 설립자 제인슨 러셀은 제이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년병 문제를 알리고 사라진 코니를 체포하기 위해 '코니 2012'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 동영상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재 조회수가 5,800만을 육박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저스틴 비버 등 인기 스타들도 '코니 2012'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에 50만 명의 소년병이 있고, 이중 절반은 주로 아프리카의 무장단체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꿈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는 소년병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권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변호사가 꿈이지만 돈이 없다'고 멀쩡하게 말하던 제이콥은 현재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간다 마케레레 법대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전준우 기자 <머니투데이> 2012년 3월 10일자 기사

